

## 멕시코 정부, 2017년도 예산 4조 8천억 페소로 확정 발표

멕시코시티사무소

### □ 2016년 예산 대비 2,400억 페소(127억 달러) 삭감

- 정부는 국제경제 불안과 유가 하락 및 부채 증가 등 국내 문제 대응을 위해 금년 예산대비 1.7%, GDP대비로는 1.5% 감소
  - 이는 최근 연도별 삭감액 중 최대 규모임. 참고로 2015년 및 2016년 삭감 규모는 각각 1,350억 페소 및 700억 페소
- 산업적 측면에서 본 삭감규모는 에너지분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교육, 통신, 교통, 농업, 보건, 도시개발 순
  - 특히 에너지 분야 중 국영정유회사인 PEMEX 예산은 1,000억 페소 삭감된 3,900억 페소(당초 예산안 대비 21% 대폭 감소)

### □ 무디스, 예산 삭감이 멕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

- 공공 투자 및 지출 감소로 국가 경제의 저성장 초래
  - PEMEX 유전 탐사 및 생산 분야 투자가 위축되면서 원유 생산 감소(금년 대비 연산 약 5%)로 인한 정부 세입도 감소
  - 공공건설 분야 투자도 감소되면서 고용 악화, 소비자 구매력 약화로 예상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

## □ 아국기업의 에너지, 건설 분야 사업 위축 가능성

- 주요 발주자인 PEMEX 정유설비 프로젝트 추진 지연 우려
  - 현재 우리 기업이 수주 추진 중인 150억 달러 규모의 3개 정유설비 reconfiguration 프로젝트 발주 지연 예상
  - 삼성엔지니어링 기 수주 및 건설 중 Cadereyta 탈황설비(5.5억 달러규모) 공사대금 원활한 지급 우려

## □ PEMEX 차입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적 안정성 우려

-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PEMEX 재무상황 악화 지속
  - 맥 원유가는 2012년 이후 15분기 연속 수입 감소되고 있는바, 유전개발 투자 부진과 기존 유전 수명 감소가 주요 원인
  - PEMEX 대출규모 2016년 2분기 말 현재 전년말 대비 잔액의 6% 증가\*하는 등 재무상황 지속 악화
- 향후 당행 대 PEMEX 여신 제공 시 감안 필요
  - PEMEX 리스크 증가로 예상부도확률(EDF) 상승 추세 지속
    - PEMEX EDF 추이 : '14년(0.81%)→'15년(1.50%)→'16. 8(2.08%)
  - \* Moody's는 맥 국내금융권의 PEMEX에 대한 익스포저 증가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도 '긍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전환